

한국지엠 내수 부진 '수렁'... 대리점 폐업 도미노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량에 경고등이 들 어오면서 국내 한국지엠 차량 판매대리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종은 단 2종뿐이라 대리점까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차량 판매대리점은 과거 300~500여 곳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리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작년 말 11곳 대리점이 폐업을 알리면서 현재는 100여 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다음 달 4곳이 추가로 폐업 예정을 알리면서 96개 대리점만 남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구매할 차종이 줄어들면서 대리점도 폐업의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황은자 판매대리점협회 수석부회장은 "2018년 군산공정 폐쇄 후 국내에서 만들던 차종이 많이 사라졌다"며 "6년간 단종된 차량만 스파크·말리부·임팔라·크루즈·라보·다마스 등 6종→현재는 2종 판매"라며 "2018년 군산공정 폐쇄 후 줄어"고 설명했다. 라보·다마스 차종의 단종 이유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환경·안전규제 장치 도입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한국지엠 측의 입장 때문이었다.

한때 전국 500여 개 성업... 이젠 100곳도 안 남아
본사 수출 집중 정책에 국내 판매 차종 달랑 2종
정비망·사후서비스 마저 부실... 판매 감소 악순환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신차 개발비에 비급가는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수익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차 라인업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황 부회장은 "여러 대가 단종됐으면 여기에 부응해 새로운 차종이 들어오고 확대돼야 하는데 새로 도입된 차종이 없다"며 "대리점이 생존하려면 적어도 2개의 차종보다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차 라인업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내수 판매량과 직결됐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국내 판매량은 2297대로 지난해 같은

달 판매량(5230대)보다 56.1% 감소했다. 반면에 해외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수 판매 부진은 정비망과 사후 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판매량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랙스 크로스 오버 모델의 경우 출고 기간이 국내에서 가장 길어 소비자는 떠나고 수출은 지난 4월 말 기준 31만204대의 실적을 올렸다.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해외에서 10배 더 팔린다. 본사인 미국 지엠의 판매 정책에 따라 한국지엠이 수출에 집중된 결과다.

이 때문에 내수와 해외시장의 불균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에 그쳤으나 수출은 88.5% 급증했다. 생산량의 90%를 수출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에 맞춰야 회사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르노코리아 자동차만 봐도 지난해 주력했던 수출 품목이 좋지 않았고, 내수마저 반토막 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판매량 하락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셀트리온,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

아이리아·아이텐젤트 국내 승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보



셀트리온이 12조 원 규모 글로벌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30일 셀트리온은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이리아(EYLEA·성분명 에플리버셉트·사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Eydenzelt·개발명 CT-P42)'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CT-P42의 품목 허가를 신청해 승인 황반변성(wAMD)·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아이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허가 제형은 아이텐젤트주사·아이텐젤트 프리필드시린지(PFS) 두 종류다.

앞서 셀트리온은 스페인·폴란드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지난해 6월·11월 각각 미

국과 유럽에서 CT-P42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아이텐젤트의 오리지널 제품인 아이리아는 2023년 글로벌 매출 93억6000만 달러(약 12조1680억 원)를 달성했다. 국내 시장규모도 약 7200만 달러(약 940억 원)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아이텐젤트 허가를 통해 기존에 출시한 자가면역질환·항암제에 이어 안과질환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은 많은 환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skyedaily.com

음원 저작권 상생안 종료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 위기

인앱결제 의무화 후 부담 분담
협상서 창작자·플랫폼 의견 차
유튜브 뮤직만 이득 보는 구조로



음원 저작권 상생 협의안이 곧 종료되며 실적 하락을 겪고 있는 음원 플랫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과 대비되는 유튜브 뮤직의 상승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원 저작권 상생 협의안은 사업자의 구독료 인상분을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자와 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한이 만료된다. 음원 플랫폼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다.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을 부과했다. 음원 플랫폼들의 구독료 인상이 우려됐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가 저작권료 일부를 포기하고 음원 플랫폼은 구독료를 제한적으로 올림으로써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상생안이 종료되면 음원 플랫폼이 부담하는 저작권료가 상승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구독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 구독료를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경우 이용자 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최근 실적이 감소 중인 음원 플랫폼들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실제로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스튜디오 역시 1분기 영업손실 37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니뮤직의 경우 음악사업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1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했다. 유튜브뮤직이 이용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

르면 유튜브뮤직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649만6035명을 기록하며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 1위에 올랐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다. 동영상 플랫폼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강점은 크다. 여기에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돼 음악저작권료를 전부 개별 계약으로 정산한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안이 종료되더라도 유튜브 뮤직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음원 플랫폼의 위기로 연결되고 구글이 이득을 보는 구도가 된 것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PASS 모바일 신분증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이동통신 3사는 30일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PASS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해 본인 확인과 안면 인식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센터·경찰의 운전면허 확인·공직선거 투표장·국가 자격시험장·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 분야는 물론 편의점·문자·관광·영화·관·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이나 성인 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 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 신분증 QR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